

## 유머 텍스트에 나타나는 화용적 추론 구조의 양상에 대하여

남 경 완  
(고려대학교)

Nam, Kyoung-Woan. 2002. A Study on the Pragmatic Inference of Humor Text.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22, 91-107.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n pragmatic inferential structure in humor texts by analysing what is the different points of humor text compared to the general text in the linguistic points of view. In this paper, it was argued what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humor text is and which elements or structural features make the humor text different.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humor text, it was emphasized that humor is relative and conditional, and about the pragmatic inferential structure in humor texts, it was proposed the model composed of two levels. In that model,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general inferential process performed by receivers and the inferential process performed by producers. In conclusion, the pragmatic inferential structure of humor texts consists of two levels: 《Level 1: deviation from the general inference》 and 《Level 2: recombination with general inference》. (Korea University)

주제어 : 유머, 추론, 텍스트, 일탈, 재결합

### 1. 서론

본고는 유머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추론의 과정을 분석하여, '화용적 추론'의 기제로써 유머 텍스트가 분석될 수 있음을 밝히고, 나아가 유머 텍스

트만이 가지고 있는 추론 과정의 특수한 양상을 살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일반적인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추론의 과정과 유머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추론의 과정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유머 텍스트를 대상으로 그 안에서 나타나는 추론의 과정을 분석한 후, 그것이 일반적인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추론의 과정과는 어떤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위 '유머(humor)'라는 것은 웃음을 발생시키는 일체의 발화는 물론 우스운 행위, 몸짓, 표정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 중 언어학적 관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언어적 장치에 의한 것이며, 바로 이것을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데 유머 텍스트에서 웃음이 유발되는 것은 그것이 청자의 기대와 어긋나기 때문이든, 혹은 청자의 숨은 의도와 일치하기 때문이든 일반적인 대화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유되는 전제와는 다른 요소가 개입한다. 이는 곧 유머 텍스트에서는 일반적인 의사 소통의 과정에서와는 다른 화용적 요소가 개입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실제로 웃음이 유발되는 계기는 유머 텍스트의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에 추론의 불일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우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의사 소통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화 함축의 이론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특히 유머 텍스트 분석에 이용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보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일반적인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추론 구조와 유머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추론 구조를 비교하여 유머 텍스트에서는 어떠한 추론 구조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유머 텍스트의 특성

유머 텍스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과연 '유머'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머 텍스트란 '유머'를 담고 있는 텍스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머'의 정의는 언제나 상대적이고 조건적일 수밖에 없다.<sup>1)</sup>

1) 한성일(2002)에서는 '유머'를 '남을 웃기는 말이나 그 말과 함께 이루어지는 행동의 통칭'으로 정의하고, 다시 '유머 텍스트'를 '남을 웃기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일정한 구조를 갖춘 이야기'로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정의는 유머 텍스트

다음과 같은 예를 살펴보자.<sup>2)</sup>

- (1) 전구를 갈아 끼우는 데 몇 사람이 필요하고, 어떻게 갈아 끼울까?
  - ㄱ. IQ가 30인 사람 : 1명 - 전구를 맞추고서 자기가 빙빙 돈다.
  - ㄴ. 폴란드인 : 3명 - 한 사람은 전구를 붙잡고 다른 두 사람은 그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사다리를 놓는다.
  - ㄷ. 국회의원 : 21명 - 한 명은 전구를 갈아 끼우고, 나머지 스무 명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ㄹ. 정신과 의사 : 1명 - 전구가 스스로 변화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 Q. 프로이드는 두려움(fear)과 섹스(sex)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 말했을까?

A. 다섯(Fünf)

위 예들은 모두 상황에 따라 사람들의 웃음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상황은 항상 가변적이고 조건적이다. 즉, (1)의 예에서 직접 인용되고 있는 집단, 즉 ‘폴란드인’이나 ‘국회의원’ 등이 직접적인 청자가 된다면 (1)의 예는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쾌감을 유발할 것이다. 또한 ‘폴란드인’이나 ‘국회의원’, ‘정신과 의사’의 특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청자가 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문답으로 받아들여질 뿐이다.<sup>3)</sup> 마찬가지로 (2)에서는 이러한 유머를 듣고 있는 청자가 프로이드의 모국어가 독일어이고, 그가 두려움이나 성에 관한 책을 썼으며, ‘fear’와 ‘sex’라는 영어 단어의 뜻을 알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독일어로 여섯까지

---

를 유머의 정의에서 ‘행동’의 영역을 제외하고 ‘텍스트성(textuality)’을 지닌 이야기 구조로 한정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텍스트’의 정의를 통해 유머 텍스트를 언어적인 영역 안으로 포함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유머’의 정의가 가지는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성격은 사라지지 않는다.

2)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유머의 예들은 유머 관련 서적이나 인터넷 유머 사이트의 자료를 수집한 것임을 밝혀둔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머가 익명의 불특정한 작가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유머의 원전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동일하거나 약간 변형된 비슷한 유머의 예들이 여러 출전에서 동시에 나타나므로 일일이 출전을 밝히지는 않는다.

3) 이러한 유머 텍스트의 상대성은 한성임(2002)에서 지적하였듯이 곧 텍스트의 ‘용인성(acceptability)’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세는 법쯤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Ted Cohen 1999:47).

결국 어떤 텍스트가 유머 텍스트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언어학적 논의의 틀을 넘어서 인간에 대한 심리적, 철학적 고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언어학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텍스트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또 다른 종류의 텍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단지 이러한 텍스트가 사람들에게 웃음을 유발한다고 '대체적으로' 인정될 때 우리는 그것은 '유머 텍스트'라고 간주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사람이 웃게 되는 이유, 즉 '웃음의 학설'이나<sup>4)</sup> 사람이 웃게 되는 상황, 즉 '웃음의 조건'에<sup>5)</sup> 대한 연구가 전체적이고 일반론적인 것이라면 일반적인 텍스트와는 다른 유머 텍스트만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인 것이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유머 텍스트에 대한 연구 중 구체적인 웃음 유발 장치를 찾아내는 데 주력한 이도영(1999)과 같은 연구가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라면<sup>6)</sup> 유머 담화의 생성 기제를 찾아보려 한 구현정(2000)과 같은 연구는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후자 쪽이라고 하겠는데, 그것은 유머 텍스트만의 특성, 특히 유머 텍스트가 보여주는 추론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이를 통하

- 
- 4) 사람이 웃게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웃음의 학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V. Raskin(1994)에서는 유머에 대한 주요 이론을 '부조화론(the incongruity-based theory)', '적대론(the hostility theory)', '이완론(the release theory)'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김경태(1991)에서 '우월론', '기대론(부조화론)', '사회론'을 제시하였으며, 이도영(1999)에서는 '우월 이론', '대조 이론', '안도감 이론', '기계성 이론'을 웃음의 학설로 제시하였다.
- 5) 김경태(1991)에서는 '웃음의 조건'으로 '인간적일 것, 감정이 결여되어 있을 것, 지적 연결이 있을 것'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자면, '미키 마우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 것은 짐승 자체가 웃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 흉내를 내기 때문이며, 도쿄쇼에서 사회자가 출연자에게 지나치게 망신을 주게 되면 도리어 웃음이 사라지고 불쾌해지는 것은 망신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 느끼는 우리의 측은한 감정이 웃음을 차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군대 생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여학생들에게 군대 용어를 통하여 웃음을 줄 수 없는 것은 여학생들에게는 지적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6) 이도영(1999)에서는 웃음 유발 장치 중 언어적인 것으로 '발음, 단어나 어구의 중의성, 단어나 어구 파괴, 사투리, 받침, 음성 연상, 대구'를 제시하고, 비언어적인 것으로 '동문서답하기, 되받아치기, 고정 관념 이용, 특징 찾아 핵심 지르기, 정곡 찌르기, 우스운 상황 연출하기, 합정 만들기, 배경 지식 충돌시키기, 패러디하기, 과장하기, 형태에 의미 부여하기'를 제시하였다.

여 웃음의 화설이나 웃음의 조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3. 화용적 추론의 개념과 양상

#### 3.1. 화용적 추론의 개념

본고에서 유머 텍스트의 추론 구조 분석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화용적 추론’이라는 개념은 비단 유머 텍스트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텍스트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므로, 일반적인 이해를 위하여 우선 일반적인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화용적 추론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그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Grice가 제시한 대화 함축의 원리를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sup>7)</sup> 이에 따르면 일반적 대화에서의 추론 과정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유되는 대화의 격률로써 설명될 수 있다.

우선 Levinson(1983)에서 ‘대화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을 설명하는 가운데 제시된 Grice의 함축 이론을 살펴보자. Grice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해 연구하면서 일반적인 대화 협력 원칙을 나타내는 네 가지의 대화격률을 제시한 바 있다.

#### (3) 협력 원칙(The co-operative principle)

: 대화가 진행되는 각 단계에서 대화의 방향이나 목적에 요구되는 만큼 기여하라.

##### a. 질의 격률(The maxim of Quality)

: 진실된 기여가 되도록 노력하라, 특히;

i)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말하지 말라.

ii)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

---

7) 구현정(2000)에서도 Grice의 대화 격률 위배를 통하여 유머 담화의 생성 기제를 설명한 바 있다. 즉, 대화 전제나 대화 격률을 위배함으로써 유머가 만들어 진다고 언급하였는데, 본고에서 Grice의 대화 격률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각 대화 격률의 위배에 따라 유머의 유형을 나누고자 하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유머 텍스트에 나타난 추론 구조를 분석할 화용적 추론 과정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 b. 양의 격률(The maxim of Quantity)
  - i) 진행되는 대화 목적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라.
  - ii)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 c. 관련성의 격률(The maxim of Relevance): 관련성을 지너라
- d. 태도의 격률(The maxim of Manner): 명료하라, 특히;
  - i) 모호성을 피하라.
  - ii) 중의성을 피하라.
  - iii) 간결하라.
  - iv) 조리있게 하라.

Grice는 사람들이 이러한 대화 격률을 바탕으로 최대한 효과적이고 타당성 있게 상호 협력하여 대화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본고에서 보다 중요하게 관심을 두는 것은 이러한 격률의 내용 자체는 아니다. 유머 텍스트의 분석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론이 될 수 있는 것은 Grice가 대화 상황에서 상호 협력하고 있다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한 '추론(inference)'의 과정이다. 추론에 관하여 Grice가 제안하고자 했던 내용의 단초를 다음의 언급에서 찾아볼 수 있다.

- (4) 'x에 의해 [화자]가 의미하는 어떤 것'은 (대략적으로 말하면) '[화자]가 x를 발화하는 의도에서 이러한 의도를 청자가 인식함으로써 청자에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동일하다. (Grice 1957:58, Sperber & Wilson 1986:21 재인용)

위의 설명은 곧 화자가 어떤 발화를 통하여 의미하는 것은 청자가 화자의 발화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청자의 반응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Levinson(1983)에서 제시되었듯이 사람들이 Grice의 대화 격률을 단순히 표층에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의 대원칙 속에서 청자가 능동적으로 추론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분석과 일치한다.

그런데 이러한 추론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관련성(Relevance)'을 지너야 한다는 격률이다. Sperber & Wilson(1986)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모델에 대하여 고찰하면서 두 가지의 모델을 소개한 바 있다. 그 중 하나가 의사소통의 과정이 추론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추론 모델(Inferential model)’인데, 바로 이 추론 모델에서 앞서 언급한 ‘관련성’의 개념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즉, 어떠한 발화에 있어서도 청자는 자신이 그 발화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맥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고, 그 때 필요한 것이 대화 상황에서의 관련성이다. 다음과 같은 대화를 예로 살펴보자.

(5) ㄱ. 철수: 커피 마실래?

ㄴ. 영희: 커피는 잠이 안 오게 해.

(6) [추론] 영희는 깨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7) ㄱ'. 철수: (영희는 커피를 마시고 싶어하지 않는구나...)

위 (5)의 대화에서 영희의 대답은 표면적으로 철수의 질문과 관련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이 대화는 커피를 마시겠느냐는 행위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커피의 속성을 대답한 것으로 양자는 논리적인 연결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와 비슷한 대부분의 대화에서 철수는 자연스럽게 (7ㄱ')와 같은 짐작을 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의사 소통의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과연 어떠한 과정이 개입되어 의사 소통의 성공이 이루어지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5ㄴ)의 영희의 대답과 (7ㄱ')의 철수의 짐작 사이에 (6)와 같은 전제를 철수가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즉 화자의 입장에서 청자는 어떻게든 자신의 질문에 협력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예에서도 마찬가지로 철수의 입장에서는 영희의 대답은 자신의 질문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청자의 위치로 변한 철수의 입장에서는 표면적으로는 관련성이 없는 영희의 발화로부터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문맥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고, 그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6)과 같은 추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대화의 상황 속에서 문맥은 틀린 해석을 걸러내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성의 격률을 지키기 위한 전제들을 제공해주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바로 ‘화용적 추론’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화용적 추론’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논리적 추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간 의사 소통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 3.2. 화용적 추론의 양상

앞서 제시한 화용적 추론의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 대화 상황의 화용적 추론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자.

(8) ㄱ. 학생(맹구): 선생님, 독도는 미국 땅이죠?

ㄴ. 선생님 : 그럼 하와이가 우리 땅이겠단, 이 녀석아.

(9) 선생님의 의도가 성공한 경우

학생(맹구): 아, 독도는 미국 땅이 아니군요.

(9)' 선생님의 의도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

학생(맹구): 아, 하와이가 우리 땅이군요. 그럼 독도는 미국 땅인가요 선생님?

위 (8)의 예는 Grice가 대화 격률의 의도적 위반(floutings)의 예로 제시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대화 구성이다. 대화 격률의 의도적 위반이란 화자가 고의적으로 대화 격률을 어긴다고 할지라도 대화의 협력 원칙이 존재하는 한 화자는 청자에게 자신이 전달하려는 의도를 확대 해석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이다. 즉, (8ㄴ)에서 선생님의 대답은 우선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질의 격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는 격률 역시 어기고 있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협력의 원칙을 준수하여 (9)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생의 대답이 (9)'와 같이 나타난다면 (8)과 (9)'사이의 추론 과정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 것일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8)에서 (9)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대화 구조에 잠재되어 있는 추론의 과정을 따라가 보자.

(10) 예문(8)-(9)의 추론 과정

▶전제 상황

1. 학생은 독도라는 섬이 어떠한 나라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한다.
2. 학생은 독도가 섬의 이름이고, 미국이 나라명이라는 것을 안다.
3. 그러나 독도가 미국에 있는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4. 따라서 학생은 부가의문문의 형식으로 선생님께 자신의 생각을 확인한다.



▶선생님: (8-)의 발화가 나오기까지의 추론

5. 선생은 학생이 어떠한 섬이 어느 나라 땅인지를 확인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안다.
6. 선생은 독도가 미국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7. 선생은 학생에게 학생의 생각이 거짓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8. 선생은 학생에게 학생의 생각이 거짓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9. 선생은 학생이 자신의 생각이 거짓이라는 것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한다.
10. 선생은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지를 아는 것보다 하와이가 어느 나라 땅인지를 아는 것이 더 쉬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혹은 선생은 독도가 미국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하와이가 우리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더 쉬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11. 선생은 학생이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지는 모르지만, 그것보다 쉬운 문제인 하와이가 우리 땅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혹은 선생은 학생이 독도가 미국 땅이 아니라는 사실은 모르지만, 그보다 쉬운 문제인 하와이가 우리 땅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2. 선생은 학생에게 ‘하와이가 우리 땅이다’라는 발화를 하면, 학생이 선생님이 현재 거짓을 말하고 있음을 알 것으로 생각한다.
13. 선생은 학생이 선생님이 자신에게 쓸데없이 거짓을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을 것으로 생각한다.
14. 선생은 학생이 선생님이 자신에게 거짓을 말한 것은 학생의 질문이 거짓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학생: (9)의 발화가 나오기까지의 추론

- 11.’ 학생은 독도가 미국 땅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하와이가 우리 땅이 아니라는 사실은 확신한다.
- 12.’ 학생은 선생의 대답이 거짓임을 안다.
- 13.’ 학생은 선생이 자신에게 쓸데없이 거짓을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 14.' 학생은 선생이 자신에게 거짓을 말한 것은 자신의 질문이 거짓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5. 학생은 독도가 미국 땅이 아님을 깨닫는다.

이상이 (8)에서의 대화 상황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9)와 같은 학생의 대답이 나오기까지의 추론 과정이라고 보여진다. 이 경우 선생님이 거짓으로 대응한 이유는 [추론12]와 [추론13]에 따라 학생을 배려하려는 의도로 파악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론은 기본적으로 협력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려는 선생님의 의도는 청자의 입장에서 서 있는 학생의 상태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 즉, 학생이 하와이가 우리 땅이 아니라는 사실조차 모른다면 선생님의 '스스로 학습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는 곧 화자의 입장에서 서 있는 선생님이 수행하고 있는 [추론12]와 [추론13]이 청자인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리라고 보장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대화 구조에서 나타나는 화용적 추론 과정에서 하나의 '불일치'가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이 (9)'와 같이 대답함으로써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 경우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첫째, 학생은 하와이가 우리 땅이 아니라는 사실조차 모른다. 이 경우 정상적인 추론 과정 중 불일치가 나타난 부분은 [추론12]이다. 즉 학생은 '하와이가 우리 땅'이라는 선생님의 발화를 거짓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추론10]과 [추론11]에서 나타난 선생님의 예측이 실패한 것에 기인한다. 먼저 [추론10]에서 '독도가 미국 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하와이가 우리 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더 쉬운 문제라는 어떠한 보장도 없고, 또 [추론11]에서도 선생님이 학생이 현재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를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은 선생님이 자신에게 쓸데없이 거짓을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추론13]의 과정에서 불일치가 나타난다. 이 경우 학생은 자신의 물음에 대하여 선생님의 대답이 협력의 원칙 하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성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결국 우리는 학생의 대답에 따라 추론 과정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학생의 대답이 (9)와 같았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화행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 경우 모든 추론 과정이 정상적인 협력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구성되게 된다. 반면 학생의 반응이 (9)'와 같았다면 그것은 선생님과 학생의 추론 과정 사이에 불일치가 나타난 것으로 이 경우 두 사람 사이의 화행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성공적인 화행이 이루어진 (8)-(9)의 대화 구조에서보다 화행이 실패로 끝난 (8)-(9)'의 대화 구조에서 웃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즉,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추론 과정과 비교하여 어떤 부분에서 추론의 불일치가 나타날 때, 이로부터 웃음이 발생하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장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 4. 유머 텍스트의 화용적 추론 구조 분석

4장에서는 유머 텍스트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다양한 화용적 추론 과정이 개입되는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협력의 원칙이나, 대화 격률의 의도적 위반 등과 같은 다양한 화용적 추론 과정의 개입 자체가 어떤 텍스트를 유머 텍스트로 간주할 수 있게 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사실상 '다양한 화용적 추론 과정의 개입'은 유머 텍스트가 아닌 일반적인 대화 함축의 예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요소이며, 어떤 텍스트가 유머 텍스트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화용적 추론 과정이 개입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생산자와 수용자가 각각 수행하는 추론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나야 한다는 또 다른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유머 텍스트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동문서답하기' 유형의 예를 살펴보자.

- (11) 박봉에 시달리던 사원 한 명이 큰마음을 먹고 사장실에 들어갔다.  
 사원 : “어젯밤에 집사람하고 길게 의논을 했는데요. 지금 월급으로  
 는 도저히 두 식구가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서...”  
 사장 :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혼 문제를 상의하러 온 건가?”

(11)의 예는 한성일(2002)에서 '동문서답하기'의 예로 제시된 것이다. 이것

은 매우 단순한 텍스트이지만, 사원의 발화와 사장의 대답 사이에는 표면적으로는 어떠한 논리적 연결 관계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 본 (5)나 (8)의 예와 그 구조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지금 월급으로는 두식구가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발화  $p$ 와 '이혼 문제를 상담하러 오다'라는 발화  $q$  사이에 'if  $p$  then  $q(p \rightarrow q)$ '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 만한 의미론적 함의나 논리적 함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의 예에서 웃음이 유발되는 것은 사원이 수행한 추론 과정과 사장이 수행한 추론 과정 사이의 불일치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러한 불일치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로 유머 텍스트의 추론 구조를 분석하는 작업이 된다.

여기에서 (11)의 예가 (5)나 (8)과 다른 점은 단순히 대화 격률을 어겼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즉, 대화 격률을 어겼다는 사실 자체는 (5)와 (8), (11)의 예문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만으로는 대화 격률의 의도적 위반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 텍스트와 유머 텍스트 사이의 차이를 밝히는 데는 부족하다.<sup>8)</sup>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일반 텍스트의 추론 구조와 유머 텍스트의 추론 구조를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앞서 언급한 유머 텍스트 내에서의 추론의 불일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2) ㄱ. 화자1 : “요즈음 공중 도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화자2 : “그거 큰일이군요.”

ㄴ. 화자1 : “요즈음 공중 도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화자2' : “공중 도둑이 많이 다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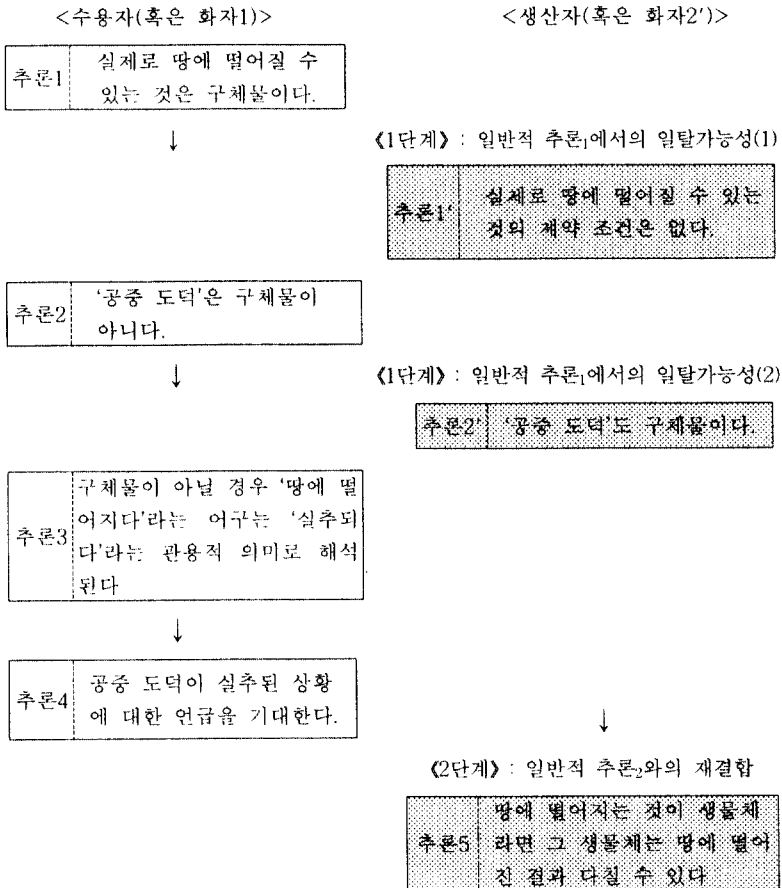
위의 예는 '땅에 떨어지다'라는 어구를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화자2의 대답이 (ㄱ)과 (ㄴ)으로 달라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8) 구현정(2000)에서도 '유머를 만들어 내는 것'과 '유머 생성의 원인' 그리고 '유머 해석의 과정'을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이러한 차이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대화 전체나 대화 원리를 위배하는 것'과 '두 인식 영역 사이의 불일치', 그리고 '두 인식 영역 사이의 연결 관계 파악'을 순차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유머 텍스트의 분석에 체계적인 틀을 제공하였다고 점에서 이전의 연구와 비교하여 한 단계 발전된 견해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생성 요인, 생성 원인, 해석의 과정 전체를 하나의 틀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은 유머 텍스트의 추론 구조 분석으로 가능함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화자2의 대답이 (ㄱ)일 경우보다는 (ㄴ)일 경우에 웃음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ㄱ)과 (ㄴ)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유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의 일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12)에서 화자1의 발화에 대해 (ㄱ)과 (ㄴ)에서 이루어지는 추론 과정을 비교해 보자.

[그림1] 예문(12)의 추론 구조



위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유머 텍스트의 수용자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추론 과정과 생산자가 만들어 내는 추론 과정 사이에는 불일치가 드러난다. 즉, (12)에서 화자1의 발화에 대한 일반적인 추론 과정은 [추론1] → [추론2] → [추론3]과 같이 나타나고, 이러한 추론의 결과에 따라 (7)과 같은 화자2의 발화가 도출되는 반면, (12)의 경우는 이러한 일반적인 추론 과정 중 어디에선가 일탈이 나타나게 된다. 화자2의 발화가 (12)과 같이 나타났다면 [추론1]이 <실제로 땅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의 제약 조건은 없다>와 같이 일탈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추론1]은 일반적으로 수행된 상태에서 [추론2]가 <‘공중 도덕’도 구체물이다>와 같이 일탈되었을 수도 있다. 바로 이러한 일탈로부터 1차적으로 추론의 불일치가 생겨나게 된다.<sup>9)</sup>

그러나 유머 텍스트의 특성은 이러한 추론의 일탈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추론의 일탈이 발생한 이후 다시금 [추론5] <땅에 떨어지는 것이 생물체라면 그 생물체는 땅에 떨어진 결과 다칠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추론과 다시금 결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유머 텍스트의 수용자가 일반적인 추론 과정에서 일탈된 [추론2]’로부터 새롭게 [추론5]로 이어지는 진행, 다시 말해 2단계로서의 ‘일반적 추론<sub>2</sub>와의 재결합’을 구성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수용자에게 위와 같은 예는 단지 이해되지 않는 텍스트로 남게 될 뿐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유머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추론의 과정은 일반적 추론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제시할 수 있다.

### (13) 유머 텍스트의 추론 구조

〈1단계〉 : 일반적 추론<sub>1</sub>에서의 일탈

〈2단계〉 : 일반적 추론<sub>2</sub>와의 재결합

9) 익명의 심사자께서는 이러한 ‘불일치’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추론의 왜곡’ 정도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필자 역시 이러한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유머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추론의 불일치가 ‘우연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유머 텍스트의 생산자의 의도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유머의 생산자가 의도적으로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발화한 것이라면 이 때 나타나는 추론의 ‘불일치’는 당연히 의도적인 것이 되겠지만, 이러한 의도성이 없이도 웃음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유머 텍스트의 추론 구조는 《1단계:일탈》과 《2단계:재결합》으로 이루어지며,<sup>10)</sup> 이 두 요소가 함께 유머 텍스트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다만, 둘 사이의 관계는 어느 한 요소가 강해지면 나머지 한 요소가 약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양자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라는 개념 역시 유머 텍스트 자체가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것처럼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sup>11)</sup>

이상과 같이 유머 텍스트의 추론 구조를 상정할 때,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이러한 추론이 발생하는 언어적 층위가 무엇이나 하는 점이다. 즉, 추론의 일탈과 재결합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추론의 불일치 구조를 촉발시키는 언어의 층위에 따라 유머 텍스트 추론 구조의 하위 양상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인데, 본고에서는 그 층위를 어휘 차원, 문장 차원, 담화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동음이의어의 활용이나 단어의 중의성 이용, 방언의 이용 등은 언어의 어휘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어구의 재분석 등은 문장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sup>12)</sup> 동문서답과 같은 것 등은 담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유머 텍스트의 추론 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언어의 층위가 달라짐에 따라 그로부터 생성된 추론의 일탈 원인도 달라지게 되는데, 어휘 차원이나 문장 차원에서의 추론은 단순히 해당 어휘에 대한 지식의 결여나 문장 구조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

10)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여러 유머 텍스트에 대하여 본고에서 제시한 이러한 추론 구조의 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더 많은 자료를 통하여 검증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아울러 (13)에서 제시한 추론 구조는 전체적인 틀로서 제시하는 것이며, 일탈의 유형이나 재결합의 방향성 등과 같은 여러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11) 한성일(2002)에서도 웃음이 발생 원인으로 설정한 '비에측성'의 개념에 대하여 그 정도를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언급으로 미루어 볼 때, 한성일(2002)에서도 '결과의 의외성'과 '반응하려는 의욕' 사이에 상관관계를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구체적인 양상을 기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추론 과정의 불일치 구조를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파악하고 그 유형을 검토함으로써, 유머 텍스트의 수용자가 《2단계》의 추론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12) 대표적인 예는 '아이 가졌대요'라는 문장에 대해 동사와 조사를 재배열하여 '어른이 이겼대요'를 대응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해 나타나게 되지만, 담화의 차원에서 추론은 세상사적 지식을 동원한 화용적 추론의 불일치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sup>13)</sup>

## 5. 결론 및 남은 문제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이 유머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추론의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 봄으로써 유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즉, 유머 텍스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텍스트에서 일어나는 추론 과정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고, 그 결과 유머 텍스트는 '일반적 추론<sub>1</sub>에서의 이탈'이라는 《1단계》와 '일반적 추론<sub>2</sub>와의 재결합'이라는 《2단계》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유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영역과 다양한 성격에 비추어 본다면 본고에서 제시한 추론의 분석 과정은 그 출발점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어떠한 일반화를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화용적 추론의 개념으로 유머 텍스트가 분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가능성이 다른 종류의 유머 텍스트에도 얼마나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과연 추론의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고찰하는 데 유용한 또 다른 방법론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영근(1995). 「단어·문장·텍스트」, 한국문화사.  
 권재일(1998). "텍스트 언어학과 인문학의 발전", 「추상과 의미의 실제」, 박이정.  
 구자은(1991). 「대화구조의 모형화에 관한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구현정(2000). "유머 담화의 구조와 생성 기제", 「한글」 248.  
 김경태(1991). 「당신도 남을 웃길 수 있다」, 지식산업사.  
 손세모듈(2000). "토크쇼에서의 웃음 유발 장치", 「한국언어문화」 18.  
 윤석민(1998). "실화텍스트의 대화 분석", 「텍스트언어학」 6.

13) 언어적 층위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추론 과정의 다른 양상들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 이도영(1999). “유머 텍스트의 웃음 유발 장치”, 『텍스트언어학』 7.  
이두현(1994). 「대화 분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의국어대 박사학위논문.  
이성범(2002). 「추론의 화용론: 언어와 추론」, 한국문화사.  
이익환·권경원 공역(1996). 「화용론」, 한신문화사. (Levinson, S. C.(1983).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장경희(1990). “국어 발화의 확대 해석”, 『한글』 209.  
장경희(1997). “국어의 대화 구조”, 『한양어문』 16.  
장경희(1999). “진술에 대한 긍정과 부정”, 『한국어 의미학』 5.  
최호철(1995). “의미연구의 전제와 차원: 언어단위 및 의미 특성을 바탕으로”, 『한남  
어문학』 20.  
한성일(2002). 「유머 텍스트의 원리와 언어학적 분석」, 경원대 박사학위논문.  
Asher, R. E.(1994).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England:  
Pergamon Press.  
Austin, J. L.(1955).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University Press.  
Levinson, S. C.(2000). *Presumptive Meanings: The Theory of 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 MIT Press.  
Searl, J. R.(1969). *Speech Ac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Sperber, D. and Wilson, D.(1986). *Relevance*, Oxford: Blackwell.  
Ted Cohen(1999). *Jokes: Philosophical Thoughts on Joking Matter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강현석 옮김(2001). 「농담 따먹기에 대한 철  
학적 고찰」, 이소출판사.)

남경완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기계번역연구소

Tel : 02) 3290-2499

E-mail : fides72@korea.ac.kr

투고일 : 2002년 7월 20일

심사일 : 2002년 8월 22일

심사완료일 : 2002년 9월 7일